

2022 성북 N 작가공모 기획전 채집-채굴 스케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의 시선 전하다

일상과 역사에서 수집한 소재
성북구는 문화자원 집약체

“예술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길”

‘2022 성북 N 작가공모 기획전 채집-채굴’이 지난달 16일부터 성북예술창작터에서 열리고 있다. ‘성북 N 작가공모’는 실험 정신을 지닌 시각예술 분야 창작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성북예술창작터는 2013 년도부터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는 장우주 작가, 차혜림 작가가 참여했다. 장우주 작가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해 곳곳에 흩어진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채집’하고, 차혜림 작가는 특정 시대에 몰입해 이미지를 ‘채굴’한다. 전시를 담당한 김소원 학예사는 “두 작가의 상반된 작품 활동에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고민했다”며 “소재를 수집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기획했다”고 전했다. 전시실 1층 입구에서는 청록색 벽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오른편의 퍼포먼스 영상을 보고 나면 그 벽이 청록색 페인트로 ‘try’를 쓴 하얀 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없이 써 내려간 ‘노력’은 쌓이고 쌓여 벽 그 자체가 돼버린다. <노력이 지워질 때>다. 연필 드로잉 <바니타스_구매목록>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가격표를 달고 판매되는 해골과 촛대의 모습을 담았다. 해골과 촛대는 17세기 ‘삶의 덧없음(Vanitas)’을 주제로 한 작품에 자주 등장 하던 소재다. <바니타스_화수분>에서 해

골과 촛불은 3D 프린팅을 통해 입체로 구현됐다. 장우주 작가는 이러한 반복과 복제를 통해 채집 상황에 내재된 공허함을 그려냈다. 장 작가의 <갤러리 투어 프로젝트>에서는 감각 경험을 포착할 수 있는 실체로 빚어낸다. 전시장임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 SNS에 업로드되면, 이를 색깔 조각으로 추출해 벽을 장식했다. 2층의 거대한 <겉뽕> 앞에서 분위기는 전환된다.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재인 ‘녹용’, 즉 사슴의 뿔을 조형한 작품이다. 뿔의 주인이었던 사슴의 머리는 <삼용보익수>에서 검은 로프를 달고 등장한다. 김소원 학예사는 “장우주 작가가 일상의 찰나를 모았다면, 차혜림 작가는 과거로 거슬러 가 서양의학과의 긴장 관계에 놓인 한방의학의 역사를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은 과거 일본의 동치 과정에서 그 가치를 폄하 당하기도 했었다. 차혜림 작가는 그러한 역사성에 착안해 녹용, 인삼, 약뿔 등 다양한 소재를 현대의 사물로 재현했다. 전시장을 따라 걷다 보면, ‘한방의학의 침체부진함도 시대력으로 그리된 것이요, 한방의학의 부흥 운동도 시대력으로 되는 것이다’, ‘의학의 종극의 목표는 질병의 완전한 예방과 완전한 치료다’ 같은 글귀를 만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성북구는 대표적인 문화도시다. 김소원 학예사는 “성북구는 문화자원도, 예술인도 풍부한 곳”이라며 “이를 보존하고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전했다. 성북구의 대표적

인 문화예술 네트워크인 ‘공유성북원탁회의’는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서 국제문화상을 프랑 스 리옹과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지방도시의 UN이라 불리는 UCLG는 2년마다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문화정책을 실현한 도시에 국제문화상을 수여한다.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성북문화재단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 및 시각예술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성북구 내 젊은 예술가들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북 N 작가공모 기획전’도 성북문화재단 창작 지원의 일환이다. 김소원 학예사는 “예술에 공적 지원 자금이 투입된 게 90년대 이후”라며 “표준계약서의 확산 등 창작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전업 예술인의 수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점점 줄어 들고 있다. 김 학예사는 “이번 성북 N 작가공모에 선정된 작가 두 분 모두 본업이 따로 있다”며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각을 ‘채집과 채굴’이라는 상반된 방식으로 조명한 ‘2022 성북 N 작가공모 기획전 채집-채굴’은 다음달 12일까지 성북예술창작터를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글 | 김민선 기자 sun@
사진 | 강동우 기자 ellipse@



<바니타스_구매목록>에는 허무의 상징인 해골과 촛대가 등장한다.



<겉뽕>과 <삼용보익수>는 한의학의 주요 약재인 녹용을 구현한 작품이다.

청년예술과 지역 활성화

“젊은 예술로 지역에 생기 더해요”

지역활성화 주체로 나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용하기도

많은 예술인이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등 수도권에 중심으로 활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의 40%, 청년예술인의 45.5%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예술의 힘이 수도권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예술의 힘은 때로 조용하고 소박한 곳에서 더 빛을 발한다. 지역과 협업하며 창작활동을 이어나가는 예술인들이 그 예다. 지역은 예술인들에 창작활동의 터전을 제공하고, 예술은 고요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예술인들은 지역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한다.



리어예술단이 현대적 요소를 더한 전통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무용에 담은 1000년의 역사
리어예술단은 한국 무용과 미술,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이는 전통문화예술단이다. 한국무용동화책을 제작하고, 한국무용전문교육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리어예술단은 특히 경상북도 경주시와 인연이 깊다. 경주시 엑스포 대공원에서 열린 <흥부전, 재심> 공연을 시작으로, 탈춤을 활용한 이색적인 홍보 영상 ‘경주엑스포 호랑님 생일잔치’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경주최부자고택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한국수력원자력 <신라 풍류도원도>, 경주시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등 지역의 역사를 담은 무용극을 선보였다. 리어예술단 이다현 대표는 “어떤 예술이든 지역과의 네트워크는 중요하다”며 “서울은 워낙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아 치열하고 꾸준한 활동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가치를 알아봐 준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 출신 여성 위인들의 발자취를 알리는 활동을 기획했다.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를 통해 매칭된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알려졌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을 현대의 배경 앞에 불러왔다. 구 제일교회, 3·1만세 운동길, 계산성당 등 상징적 장소에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 하며 사진을 촬영했다. 춤과 악기에 능통한 독립운동가 ‘현계옥’, 대구 3·1 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 ‘이선애’, 대구 서문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임봉선’, 여성 최초 국제보상운동 조직인 ‘남일동 패물패지부인회’의 실질적 리더 ‘정경주’ 등의 모습이 담겼다. 예술인들은 사진 위에 드로잉, 텍스트, 음악 등 각자의 작업을 더했다. 완성한 작품은 실제 인물 크기로 뽑아 ‘2021 여성UP엑스포 <반지길X ARTIST> 여성위인 이미지 전시 - 2021 여성위인들을 재현하다’에서 함께 전시했다.

5.18 정신을 캠페인으로 옮기다
광주 5·18 재단은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택했다. 이 역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의 일환이다. 예술인들은 ‘오월의 기억을 데려가세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카스트데이프형 디스펜서’와 ‘미니휴대용 구급함’을 제작해 판매했다. ‘오월의 기억을 데려가세요’는 참여자들이 5·18 사적지에 찾아가 사진을 찍고, 기념비에 깃든 이야기를 모으며 함께 이어갈 가치를 찾아가는 캠페

인이다. 예술인들은 29곳의 오월 사적지 중 ‘진실과 연대’, ‘돌봄과 도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을 열었다. 각 장소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선정해 다양한 감성의 드로잉 작품을 선보였다.

단순 체험지에서 예술이 깃든 마을로
충주시 신나면에 위치한 긴들마을엔 충주에서 제일 큰 저수지와 20km 이상의 긴 들판이 내다보이는 독길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마을 기업을 운영한다. 프로젝트 ‘긴들마을 예술로 가다’는 긴들마을을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사람들도 참여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예술인들은 주변을 살펴 예술 스팟을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마다 음악회를 기획했다. 내포긴들영농조합법인의 주된 생산품인 팝콘 옥수수를 홍보하기 위해 ‘옥수수송’과 ‘팝콘송’도 만들었다. 완성된 음악은 팝콘키트 체험 영상에 배경음악으로 넣어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홍보했다. 농촌 마을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도심을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글 | 김민선 기자 sun@
사진제공 | 이다현 대표

긴 글 읽느라 피곤하시죠? 잠시 쉬었다 가세요.

高大新聞

컬러테라피

| 파랑은 이성과 신뢰의 색으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